

춘천교육대학교 2004학년도 정시 논술 문제

※ 아래의 글 (가),(나)를 참조하여 (다)에 나타난 두 가지 교육 방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를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가) 교육의 과정에서는 ‘창의성’ 교육론자들이 비판하는 주입식 교육 방법— 기계적 암기, 획일적 제시, 교사 주도적 수업—이 오히려 필연적으로 요청되는지도 모른다. 가령, ‘태정태세문단세...’ 하는 식으로 조선왕조표를 외우게 하는 역사 수업은 그것을 가르치는 한 과정으로서 소위 주입식 ‘암기’ 를 요구한다.

이러한 성격은 비단 역사 교과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교과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의성’교육에서는 “모든 학습의 모체라고 할 만한 ‘외우는 일’이 골중의 잔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멸의 대상이 된다.”

(나) 현대 사회는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소품중 다량 생산시대’ 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부품을 부지런히 조립하는 사람이면 족했다. 굳이 머리를 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품중 소량생산’,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의 시대다. 똑같은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택하여 전혀 ‘다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시대에는 명령을 잘 들으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 문제의 핵심은 변화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데 있다.

(다) 음식사극(飲食史劇) ‘대장금’이 최근 시청률 50%를 넘어섰다. 인기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수라간 나인인 ‘장금’과 ‘금영’의 긴장된 요리 대결일 것이다. ‘장금’은 탁월한 영감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였다. 한편, ‘금영’은 5명의 수라간 최고상궁을 배출한 집안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집중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정통의 맛을 창출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장금’으로 대표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은 지식을 즉흥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시켜 준다. 그러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이 교육법이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진단과 함께 최근 ‘금영’이 상징하는 지식 주입 위주의 ‘직접 교수법’이 대두되는 추세이다.

▶ 지시사항

1. 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분량은 1,000자(±80자)를 기준으로 한다(기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감점됨).
 - 띄어쓰기와 단락나누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로 계산한다.
 - 답안을 작성한 뒤에 되고 과정에서 한 줄(20자) 이상을 전체적으로 삽입한 것은 글자 수로 계산하고, 삭제한 것은 글자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 답안을 작성한 뒤에 되고 과정에서 낱말이나 어절을 삽입하거나 삭제한 것은 글자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2. 논지 전개에 제시문의 내용을 과다 인용할 경우, 감점 처리한다. 논지 전개상 부득이 인용할 경우, 인용 부호를 사용한다. 3.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감독관이 나누어 준 필기 도구와 용지만 사용한다.

▶ 참고사항

1. 답안지는 2단으로 되어 있으니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최종 답안은 답안지에 작성하며, 연습할 때는 연습지를 자유롭게 활용한다.
3. 답안지와 연습지 오른쪽 끝에 표시된 숫자는 첫 칸부터 그곳까지의 글자 수를 나타낸다.
4. 연습지와 문제지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한다.